

과목명: 대학글쓰기, 학과명: 작업치료학과, 이름: 구인혁, 학번: 202211463

제목: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평: 1) 전체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고 짜임새 있는 글을 작성함 2) 다만 내용적으로 인간 예술가의 경우 창작의 시간이 필요함에 비해 AI 예술가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은 근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함(마르셀 뒤샹의 예 등). 3) 에세이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더 해진다면, 훨씬 좋은 에세이를 쓸 가능성이 많음. 4) 참고문헌 작성이 빠져 있음.

## 1. 서론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예술 범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예술로서 접하는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게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음악 속 장르들인 재즈, 록, 힙합 등등 예술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아트 부분에서 제이슨 M. 앨런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다. 사실 이 작품은 출품자 본인이 그린 작품이 아니라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문구 몇 마디를 입력해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만에 그린 작품이다.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혹은 휴머노이드들이 등장해 예술을 자처하며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술이란 원래부터 인간의 영역이었으며 인공지능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예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 2. 본론

### 2. 1.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은 이렇다 할 수 있는 설명 거리가 없는 분야이다.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피트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혹은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피터 워어의 '트루먼 쇼'와 같은 미술과 영화 작품들을 흔하게 예술로서 접한다. 이런 작품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하나 작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술과

영화뿐만 아니라 최고의 명곡으로 평가받는 비틀즈의 'Let It Be', 마이클 잭슨의 'Billie Jean' 등도 결국에는 원작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작가 혹은 작곡가들의 독창성, 창의성과 수많은 시간의 투자로 만들어진다. 인공지능 및 AI 들은 이러한 독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 2. 2. 인공지능에 대한 시선 **내용이 너무 길 때에는 문단을 구분해줄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의 작품들을 예술로써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예시로 제이슨 M. 앨런이 미드저니를 통해 출품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러하다, "작품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열정,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사람들은 앨런이 마치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해 몇 초 만에 작품을 얻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작업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제대로 표현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차피 디지털 조작 예술의 영역 자체가 일반 미술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창작하고 편집한 작품도 비판 받아야 하지 않을까. 붓 칠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비판은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 아트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sup>1</sup> 등 앨런이 생각했을 수많은 아이디어들,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품들과 비교하며 앨런의 작품이 작품으로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반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측의 의견은 이러하다, "과거에도 미술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도구가 나왔을 때 비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AI는 미술 도구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한다. 도움을 받는 것과 완전히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매우 다른 영역이다.", "자신의 작품을 직접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디테일도 자신의 손끝으로 한다. 그러나 텍스트로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어느 정도는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표현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00%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sup>2</sup> 등 미술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과 AI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다르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낸 작품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판단해 만들어낸 작품이기에 그 사람의 작품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등 여러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민과 시간을 쏟아서 작품을 만들었

---

<sup>1</sup> <https://anotherthinking.com/jemogeobseum-3/>

<sup>2</sup> <https://anotherthinking.com/jemogeobseum-3/>

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4년 동안의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완성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의 눈에는 완벽한 작품으로 보이는 '모나리자'가 정작 작가의 눈에는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도 완성하지 못하는 작품이 있는데 미드저니와 같이 텍스트만 입력하면 단 몇 초만에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품이 과연 작품으로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앨런은 미드저니의 사용법과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과연 앨런이 아이디어를 고민한 시간과 입력할 텍스트를 고민한 시간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반 고흐는 밤 하늘의 풍경을 보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활용해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려냈다. 하늘을 본 것만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내고 물감과 붓을 활용해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이 있기에 반 고흐의 작품은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하고 작품을 그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을 예술가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것들을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이 몰랐던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예술이지 않은가 하는 반론을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들이 몰랐던 작품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그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떠올린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긴 시간을 투자해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말에는 마르셀 뒤샹의 '샘'을 예시로 들며 반론할 수 있다. 물론 '샘'은 '모나리자'처럼 4년의 시간을 투자하여도 만들지 못한 작품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시간일 것이지만 작품 '샘'의 모델로 사용된 소변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소변기 또한 인간의 발명품이고 그것을 만드는데 사용된 시간과 마르셀 뒤샹에게 선택받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기에 예술로써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틀린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필자가 말한 설명은 그 작품을 만들며 작가가 느꼈을 감정과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인공지능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예술가의 기준을 나눈다고 볼 수 있다.

### 3. 결론 부분의 글씨체가 일치하지 않음

#### 3. 결론

인공지능의 작품을 예술로써 인정하게 된다면 세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각각의 독창성을 가지고 하나의 예술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독창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미 인간이

만들어놓은 작품들을 참조하며 독창성이 없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독창성만 가지고는 인공지능을 예술가로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창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그것에 더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떠올린 아이디어, 만들어 낸 과정, 그 작품을 의미와 설명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만 인공지능을 인간과 같은 예술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